중소도시 제자훈련의 작은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주 요청하는 것 중 하나는 "중소도시의 작은 교회가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1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 위치한 평산교회(담임: 강진상 목사)는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현장이다. 올해로 설립 17년차를 맞는 평산교회는 현재 장년출석인원이 3백여 명으로, 외형적 결과만 보면 주목을 끌 만큼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산교회가 처한 지역적 환경이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러한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불교세가 워낙 강하여 선교지나 다름없는 낙후한 농촌에서 개척과 더불어 제자훈련을 시작하였고, 대도시의 팽창으로 지역사회가 점차 위성도시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꾸준히 성장해 온 평산교회의 경험은, "과연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의문 속에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능하다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담임목회자 제자훈련 1년 유급?!

강진상 목사가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2년이었다. 당시는 강 목사가 평산교회를 개척한 지 4년째가 되던 해로, 갖은 고생 끝에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던 시기였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득이하게 현재의 평산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거리가 멀어 사실상 제2의 개척이나 다름없는 힘든 상황에서 강 목사는 1기 제자반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작했다.

사실 강 목사는 그때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후 CAL세미나)를 수료하지 않았다. 강 목사의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가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당시에는 CAL세미나를 수료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제자훈련 교재도 아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비록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강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나게 제자훈련을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증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제자훈련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모델 현장을 직접 보고픈 것이었다. 그래서 CAL세미나를 신청했지만, 좀처럼 참석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당시에는 세미나를 신청하면 족히 2~3년은 기다려야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강 목사는 대기자로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며,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었다.

어느덧 1기 제자반을 시작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료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강 목사는 CAL세미나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갑자기 세미나를 취소하신 분이 있는데, 대신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전화였다. 급작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산적해 있었지만, 강 목사는 만사를 제쳐 놓고 참석하기 위해 곧바로 짐을 싸서 기차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1993년 11월에 참석하게 된 CAL세미나는 강 목사에게 충격 그 자체였고, 이후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다. 강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신학을 늦게 시작한 저는 늦게 시작한 만큼 충실히 공부하고자 학부와 신대원을 합쳐서 10년 가까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CAL세미나는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이야말로 광야길같이 험하게만 느껴졌던 목회현장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제가 걸어가야 할 목회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전만큼이나 큰 고민거리 한 가지가 생겼다. 강의를 통해 그리고 실제 현장을 참관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해온 제자훈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실시한 제자훈련이 단순한 성경공부 차원에서 머문 채 훈련생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 순간 강 목사는 "이제 한 달이면 졸업인데,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강진상 목사

그래서인지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로 내려오는 길이 너무나 무겁고 길게만 느껴졌다. 막상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훈련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모자란 것이 있어 몇 가지 보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다니, 지도자로서 차마 꺼내기 힘든 말이었음에 틀림없다. 평소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 탓도 있었지만, 1기 제자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강 목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대로 이들이 졸업한다면 교회 내 제자훈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 뻔했다. 제자훈련의 토양과 분위기를 형성할 사람들의 입에서 "제자훈련을 받아보니 별 거 없더라. 힘들기만 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더라."는 말이 나온다면, 제자훈련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결국 강 목사는 훈련생들을 모아 놓고, "자신을 비롯한 전원이 1년 유급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훈련생이 아니라 인도자인 자신이 부족해서 유급해야겠다 하니, 그것은 함께 유급하여 도와달라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강 목사의 진심이 통했는지 모든 훈련생들은 유급을 받아들였고, 이미 배웠던 교재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나눔으로 매 시간은 은혜의 바다가 되었다. 1기 제자반을 받은 강 목사의 사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생들이 처음에는 의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을 믿고 따랐죠. 아니나 다를까

교재를 귀납법적으로 다루며, 서로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씨름하게 되자, 같은 교재인데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서로의 삶에 안고 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매 시간마다 눈물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까닭에 1기 훈련생들은 3년에 걸쳐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 평산교회는 지금까지 제자훈련 1년 6개월, 사역훈련 1년 6개월 합쳐서 공식 훈련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제자훈련을 시작한 평산교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3년 6월 현재 7기 제자반과 5기 사역반까지 실시하였다.

환경,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사실 평산교회가 속한 웅상 지역은 전형적인 위성도시로 정착률이 매우 낮고 유동성이 큰 지역이다. 부산과 울산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이 지역은 부산이나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로 찾게 되는 곳이다. 대도시에 비해 집값이 싸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생활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낮으며, 교회도 대도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이 지역은 원래 불교권이 강해 원거주민들만 보면 거의 선교 지역에 가깝다. 지금도 복음화율이 기껏해야 5%정도로 낮은 편이며, 평산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일대에 교회가 전혀 없었다.

이 지역은 수영로교회와 부전교회 등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파송한 적도 있었지만, 워낙 불교세가 강해 다들 실패하고 돌아간 상태였다. 심지어 교회를 세우면 지역 청년들이 나와 데모를 하며 똥물을 끼얹은 적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평산교회는 사람들을 끌 만한 어떠한 하드웨어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건물이래야 200명만 들어가도 넘쳐나는 본당과,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척 당시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손수 벽돌로 지은 건물, 그리고 교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전부이다.

객관적인 환경만 본다면 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할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산교회는 교인의 70%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을 유지하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고 유동성이 큰 젊은 세대들이 평산교회에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산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평산교회에 와서 가정이 많이 회복되었다"이다. 이전에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나 남편에 대한 투정이 많았는데, 평산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산교회에는 가정사역을 위한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강 목사는 그 뿌리를 제자훈련에서 찾는다. 사실 강 목사는 교회에서 애처가로 소문날 정도로 가정에서의 섬김에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제자훈련의 생활숙제도 가정에서의 섬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제자훈련 기간 중 가정의 회복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훈련생들을 이끈다.

남자 제자반의 경우, 강 목사가 즐겨 내는 생활숙제 중 하나는 아내 생일날 나이만큼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숙제 같은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숙제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는 것이 강 목사의 설명이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 꽃을 사서 집에까지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차마 전해 줄 수가 없어 그날 저녁에 신발장 위에 둔 채, 다음 날 아무 말을 않고 나온 경우도 있었다. 결국 남편이 출근한 후 꽃다발을 발견한 아내는 그것도 너무 기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반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제자반의 경우에도 애정 표현에 약해,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오라고 하면, 몇 주를 미루다가 잠자는 남편 머리맡에서 몰래 고백하고 오는 경우조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변화는 다른 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또한 훈련을 받고 순장으로 섬기게 되면, 자연스레 다락방 의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남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 회복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변화된 훈련생들과 순장들의 삶이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쳐, 평산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즘 지역에서 저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종종 묻곤 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별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모임 5주 과정을 마치면 바로 다락방에 편성하게 되는데, 다락방에만 가면 순장들이 이들을 잘 정착시키기 때문입니다. 새가족이 다락방에 적응하고 양육되는데 굳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는 순장을 얼마나 잘 훈련시켜서 세우느냐에 달렸습니다."

분명 하나의 교회가 처한 환경과 외적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이나 외적 조건만으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산교회는 잘 보여 주고 있다. 비록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지만, 변화된 사람들과 삶의 현장이 있기에 평산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 물론 평산교회는 지금의 상태로는 더 이상 건강한 교회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그동안 미루어오던 교회 건축을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

4월이면 본당만 1천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완공 예정인데, 강진상 목사는 교회 건축 전에 취재를 와 주어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 없어서 못하면 있어도 못한다!

강 목사는 CAL세미나 이후로 옥한흠 목사나 사랑의교회에 늘 빚진 심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이런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은 제자훈련을 더 열심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묵묵히 제자훈련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강 목사는 CAL세미나를 수료하면 당연히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적잖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 후부터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훈련을 하라고 권하고 다닌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리고 평산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누린 유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자훈련 전도사로 나선 그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안타깝게 느낀 것은, 자신과 같이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사람이 없어 훈련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강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초기에 교인들이 없을 때 순장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순장과 총무 2명이 모인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두 쌍둥이, 셋 쌍둥이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키워지는 것이지, 결코 집단 전체가 한꺼번에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 환경에 주목하는 이유도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람이 없다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집중하라고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는 목회자라면 결코 제자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이 없다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집중하라고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는 목회자라면
결코 제자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 목사는 사람이 없을 때 훈련을 못한다면 결코 사람이 많아도 훈련을 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교인수가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담임목회자가 이렇게 적은 인원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나 정열을 투자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곳곳에서 심방에 대한 요청도 끊이지 않고, 해야 할 일들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십 명 모아 놓고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지, 서너 명 앉혀 놓고 1년 넘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이 없을 때보다 더 훈련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던 저도 이런 유혹이 드는데, 안 하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자훈련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처음에 시작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도 개척하자마자 몇 십 명이 모일 때부터 제자훈련을 해 왔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제자훈련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살면서 교회는 부산으로 다니는 분들이 평산교회에서 제자훈련만 받으면 안 되냐고 문의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평산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강 목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 있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숱한 실패의 경험도 맛보았다. 특히 3년간 훈련시킨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자훈련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었다. 이럴 때마다 강 목사는 CAL세미나 때 옥한흠 목사에게 들은 농부의 비유를 상기한다고 한다.

"농부는 한 해 농사 망쳤다고 결코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였지만 추수 직전 낙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음 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농부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비유를 속으로 되뇌며, 제 자신이 농부라는 사실을 늘 재확인합니다." 성도가 적건 많건, 훈련의 열매가 당장 맺히건 맺히지 않건 간에, 자신이 농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평산교회는 전체 성도수에 비해 그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수료생수가 많은 편이다. 이는 중소도시나 시골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역적 여건으로 교회 성장이 더딜 경우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20/80 법칙에 의해 지도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경우 이 비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다른 교회에 비해 훈련기간이 3년으로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평산교회 역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강 목사의 경우, 어렵게 시작한 제자훈련을 멈추고 싶지 않았기에, 훈련을 꾸준히 계속하되 순장으로 파송받지 못한 수료생들을 위해 다른 사역의 장을 만듦으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다. 물론 여건상 다양한 사역의 장을 만들기 어려워, 화요전도모임이나 주중 중보기도체인 등 전도나 중보기도와 같은 기본적인 사역들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순장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수료생들도 교회 내에서 헌신할 장을 찾을 수 있었고, 꾸준한 전도와 기도를 통해 오히려 교회 성장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사람이 있건 없건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 목사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제자훈련을 통해 꾸준히 사람을 키우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만드며, 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한 현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열매, 얼마나 본연에 집중하고 있느냐이다!

강 목사는 주변에서 제자훈련을 하다가 그만둔 동료들을 보면, 그 원인이 목회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강 목사는 보통 일주일에 남여제자반과 사역반까지 해서 총 3반을 운영한다. 특히 사역반의 경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일 저녁시간을 이용한다. 따라서 주일 오후 외부 집회는커녕 평일에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너 혼자 목회하냐?"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 목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하다는 인사말을 하고 말았지만, 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저는 길지 않은 목회 경험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느낀 것은 '지금 목사가 바쁘면, 나중에는 성도들이 바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오전 10시이면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데, 목사가 노회나 시찰 일, 또는 동기들 모임 때문에 시간을 자꾸 바꾸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훈련생들은 다 이해를 해 주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훈련생들이 더 바빠집니다. 훈련생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훈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의 모든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강 목사는 훈련 중에 자신에게 굉장히 철저한 편이다. 간단한 약속이나 사소한 벌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훈련생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훈련생에게 요구한다.

성경읽기의 경우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었는지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 읽어야 할 본문 내에서 문제를 뽑아 풀게 한다. 문제를 다 못 푼 사람은 훈련 후 남아서 성경을 읽고 문제를 다 푼 후에야 갈 수 있다. 그래서인지 훈련생들도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비지땀을 흘리면서까지 훈련시간에 참석할 정도로 자신에게 철저하게 시켰다.

"사실 이렇게 유별나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도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면, 훈련생들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목자가 정말 양을 사랑한다면 양육을 안 하고는 베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나 전도 등도 목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지만, 정말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며, 제자훈련 외에는 성도를 올바로 양육하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확신이 저를 훈련에 집중하고, 그만큼 제 자신에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 목사는 최근에 이러한 자신의 철저함으로 생긴 실수 하나를 고백한다. 그것은 교회 건축으로 인해 제자훈련을 잠시 쉰 것이다. 평소 대충하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는 그였기에,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것 같아서, '어설픈 제자들을 만드느니, 차라리 잠시 쉬자'는 생각에 1년간 훈련을 멈추게 되었다. 그런데 강 목사는 이런 자신의 결정에 뼈저린 후회를 하였다.

왜냐하면 훈련을 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제자훈련 경력만 10년이 넘고, 목회 경력은 20년에 가까우며, 나름대로 인지도도 생겨 목회에 관한 한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면서 1년 훈련을 쉰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그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됐다고 한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저의 경우에는 제자훈련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로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느끼는 삶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말씀을 붙잡고 시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귀중한 교훈은, 저를 목회의 본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드는 소중한 매개체가 바로 제자훈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큰 영적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인도자 자신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이야말로 자신에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고, 목회의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양승언 강도사〉